

해 보면 낮고 불안하다고 볼 수 있다. 남을 교육하고 권유할 입장에서 일할 이들 응답자들이 자신있게 능동적으로 자기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교육계획이 필요하다.

보건간호사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공중보건잡지 Vol 7, No 2, p. 673~679, 1970

김 정 숙

보건간호 업무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보건 간호사의 심리적 특성을 규명하는 일련의 연구를 위한 기초단계로서 현 보건 간호사의 성격특성(내지는 자아개념)을 알아 보는 탐색적 연구를 시도하여 서울시내 보건소에 근무하는 78명의 보건간호원의 성격검사를 실시하고 보조적으로 서울시내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119명의 임상간호사의 성격검사와 비교하여 보았다.

지배성, 책임성 등 몇가지 특성에는 일반간호사가 일반성인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타당성 척도 및 안정성 척도 이외에서는 임상간호사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보건간호사가 병원근무 간호사보다 지배성, 사회성, 책임성, 사려성, 동조성, 남향성, 우월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사실은 성립되지 않았다.

여기에서 두 업무 및 보건간호사의 직업선택 행동에 가설적 해석을 내려 보았으나 본 연구가 지니고 있는 몇개의 제한으로 위의 해석의 타당성 여부는 앞으로의 연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의 연구에 대하여는 이상적 모델선정 등 몇가지가 암시되었다.

농촌보건 간호사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간호 Vol 8, No 6, 1970 p. 41~48

최 흥 욱

1969년 7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보건소 및 10개군보건소와 그 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간호사 151명에 대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하기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령별분포에 있어서 20~24세군이 최다수로 47.7% 를 차지하고, 25~29세군이 22.5% 로서 차위이다.

2) 근무기간에 있어서는 1~2년간 근무한 자가 수위로 29.1% 이며, 차위는 2~3년 근무한 자로 18.5% 였다.

3) 교육정도에 있어서는 간호사 41명중 간호고등기술학교졸업자가 80.5% (21.9%) 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간호학교 졸업자는 19.5% (5.3%) 이며, 간호보조원은 110명중 간호보조원교육을 필한 자가 89.1% (64.9%), 기타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교육을 필하지 않은 자가 10.9% (7.9%) 였다.

4) 결혼관계는 기혼이 43.7% 고, 미혼이 56.3% 였다.

5) 보건소에서 근무하기 전의 경력에 있어서는 간호원 41명중 임상 및 조산사유경험자가 53.7% 로 최고졸을 보이며, 학교를 졸업한 후 무경험이었던 자가 24.4%, 양호교사 유경험자가 14.6% 의 순위이다.

6) 가정방문에 소요는 시간에 있어서는 1~2시간 소요가 39.7% 로서 최다이며, 2~3시간 소요가 차위로서 23.2% 였다.

7) 가정방문시의 교통수단에 있어서는 도보로 방문하는 자가 62.9% 로서 가장 많았고, 진료차를 이용하는 자가 15.2% 로서 차위이다.

8) 보건소에 내소하는 환자의 태도는 이해는 하지만 잘 실천을 않는 경우가 62.3% 로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이해도 실천도 잘못하는 경우가 22.5%, 협조적이고 이해를 잘하지 않는 경우가 15.2% 였다.

9) 가정방문의 거리에 있어서는 20리 이내가 34.4% 로 가장 많았고, 40리 이상은 6.6% 로서 가장 적었다. 즉 방문거리 20리 이내는 58.9% 이고, 20리 이상은 41.0% 였다.

10) 담당업무 및 직급에 있어서는 간호사 41명중 정규직보건간호원이 34.1% 이고, 임시직간호원이 65.8% 이고, 간호보조원은 110명 모두가 임시직이었다. 정규직간호사는 각시군당 1명씩 한정되어 있어서, 6~7년간을 근무한 자라도 정규직내에 못들게 되면, 임시직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현상이었다.

11) 정기적인 Meeting 에 있어서는 1개월에 1회를 원하는 자가 62.3% 로서 과반수를 차지하며, 1개월에 3회를 원하는 자가 1.3% 로 가장 적었으며, 필요치 않다는 자가 4.0% 였다.

12) 기혼자와 미혼자의 앞으로의 근무상황에 있어서는 기혼자 66명중 더 계속하고 싶다는 자가 43.9% 로서 가장 많았고 미혼자는 85명중 그만두어야 하겠다는 자가 38.8% 로서 가장 많았다.

13) 분담업무별로 본 앞으로의 근무상황에 있어서는 정규직 보건간호사 14명중 계속하고 싶다는 자와 별일 없으면 그냥 지내겠다는 자가 각각 42.9% 로 가장 많고, 결핵요원은 56명중 그만두어야겠다는 자가 35.7% 이고 계속하고 싶다 및 별일 없으면 그냥 지내겠다고 각각 32.1% 였으며, 가족계획과 모자보건검입자는 81명중 그만두어야겠다는 자가 35.8%, 별일 없으면 그냥 지내겠다는 자가 34.6% 였다.

14) 보건소에서의 약품에 있어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자가 23명중 치료실에만 머물러 있으면 보건소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있게 된다는 자가 43.5%로 가장 많았으나, 필요로 하는 자가 128명중 보건소 및 계몽상 필요하다는 자가 56.3%로서 수위였다.

15) 보건소간호사의 초임급에 있어서는 정규직간호사가 13,750원, 모자보건요원이 19,800원, 가족계획과 결핵요원이 각각 12,300원과 11,140원이고, 간호보조원이 9,400원으로 봉급액에 있어서는 간호보조원과 가족계획 및 결핵요원과는 별차이가 없었으며, 특히 직책상 위험에 폭로되고 있는 결핵요원에게는 이에 대한 보건대책이 없었다.

16) 간호사의 정원 및 현원에 있어서는 청주도립병원의 간호사 정원수는 12명으로 4급잡이 1명, 4급을이 1명, 5급잡이 2명, 5급을이 8명이었으며, 현원은 4급잡이 1명, 5급을이 11명으로 모두 충원되었고, 충주도립병원 간호사 정원은 9명으로 4급을이 1명, 5급잡이 1명, 5급을이 7명이고, 현원은 5급잡이 1명, 5급을이 8명으로 9명이 모두 충원되었다.

보건소간호사의 정원은 청주시보건소에 5급잡이 1명, 5급을이 1명, 충주시보건소에 5급을이 1명이 있었고, 각군보건소에 5급을이 1명씩 있었으며, 임시직에 있어서는 청주시 및 청원군에서 각각 7명 9명으로 모두 충원되었으나, 충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및 증원군에서는 필요한 수에 비하여 상당한 인원이 부족상태에 있었고, 단양군 및 제천군에서는 임시직이 하나도 충원되지 못한 현상을 나타낸다.

일부 중도시 부인의 산전관리 실태조사

경기간호학교 논문집, Vol. 2, pp. 3~30, 1971.

김 계 숙

1969년 1월 1일부터 1970년 7월말까지 인천시에 있는 도립인천병원에서 산전 간호를 받은 부인 566명을 대상으로 하여 산전 관리에 관한 諸 양상을 조사검사한 바 다음 결론을 얻었다.

1) 부인의 연령별 분포는 25~29세 군이 242명(42.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30~34세 군이 132명(23.3%)이다.

2) 교육정도는 고졸이 212명(37.5%)으로 수위이고 다음은 중졸이 170명(30.4%)이다.

3) 가사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부인은 566명 중 88명(15.5%)이었다.

4) 남편의 직업은 회사원이 286명(50.6%)으로 수위이고 다음은 상업이 163명(28.